

〈의산문답(醫山問答)〉의 창작 배경 연구

연행록의 전통 수용을 중심으로

김동건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박사수료, 한국한문학 전공
sky200106@hanmail.net

I. 머리말

II. 연행의 목적 재고(再考)

III. 연행록의 전통 수용

IV. 맺음말

I. 머리말

〈의산문답(醫山問答)〉은 홍대용의 대표작으로, 지전설·인물균론·무한우주론·역외춘추론 등의 주제로 요약된다. 지금까지 작자인 홍대용과 『담헌연기(湛軒燕記)』에 대한 연구는 물론, 〈의산문답〉에 대한 문학적·과학적 접근부터 생태적인 분석까지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이 글의 성격에 대해서도 의론이 분분했는데, ‘철리산문’이나 ‘철학소설’ 또는 ‘과학소설’이라고 규정되었다. 그만큼 〈의산문답〉이 내포하는 의미가 넓고 깊음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의산문답〉 내용 자체를 다루기보다, 관점을 바꾸어 어떤 배경과 근거에 의해 저술되었는지 짚어 보고자 한다. 이는 〈의산문답〉에 대한 이해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바탕이 되리라 생각한다.

〈의산문답〉의 창작 시기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대체로 그의 학문과 사상이 완숙된 만년(晩年)에 지은 것으로 본다.¹⁾ 이는 1765년에 이루어진 저자의 연행과 상당한 시간차가 있으나 〈의산문답〉에는 연행과 깊은 친연성(親緣性)을 보이는 요소들이 나타난다.

허자는 은거하며 독서한 지 30년 만에 천지(天地)의 변화와 성명(性命)의 오묘함을 깊이 연구하고 오행(五行)의 근원과 삼교(三教)의 깊은 뜻에 통달하여 사람의 도리를 밝히고 사물의 이치에 회통했다. 심오한 이치를 캐내어 세상일을 환히 꿰뚫은 뒤에 나와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으나, 듣고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 허자는 말했다. “작은 지혜를 가진 자들과는 함께 큰 것을 말할 수 없고, 비속한 자들과는 더불어 도를 이야기할 수 없다.” 그러고는 서쪽 연경(燕京)으로 들어가서 벼슬아치들과 이야기 하며 관소에서 60일을 머물렀으나, 끝내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했다.²⁾

우선 작품의 배경이 의무려산(醫巫閭山)이라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의무려산은 해발 867미터로 낮은 산이지만, 만주 벌판이 끝나는 지점에 있기 때문에 계속되는 벌판을 지나온 연행자들에게 상당히 높게

1) 〈의산문답〉의 창작 시기에 대한 고찰은 박희병, 『범애와 평등』(돌베개, 2013), 132쪽 참조.

2) 洪大容, 『湛軒書』, 「補遺」, 〈醫山問答〉. “子虛子隱居讀書三十年, 窮天地之化, 究性命之微, 極五行之根, 達三教之蘊, 經緯人道, 會通物理, 鉤深測奧, 洞悉源委, 然後出而語人, 聞者莫不笑之, 虛子曰: “小知不可與語大, 陋俗不可與語道也.” 乃西入燕都, 遊談于搢紳, 居邸舍六十日, 卒無所遇.”

느껴지는 동시에 장쾌한 감흥을 주었다. 이 산은 연행을 오갈 때 경유해야 하는 장소로, 조선의 연행자들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왔다.

다음으로, 허자(虛子)가 다녀온 곳이 북경이라는 점이다. 자신을 알아 줄 사람을 찾아 더 큰 세상으로 떠난 것이라는 설정이지만, 당시 북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연행이었다. 현실에서는 정식 연행사절에 소속되지 않는다면 북경은 고사하고 압록강 너머 책문(柵門)조차 지날 수 없었다. 또한 허자는 북경에서 ‘60일’을 머물렀다고 했는데, 이는 연행사절이 북경에 체재하는 기간인 2개월과 일치한다.³⁾

마지막으로, ‘○○問答’의 형태가 한문본 『담헌연기』에 나타난다. 『담헌연기』에 속한 문답류(問答類) 작품은 세 가지로, 모두 연행 중에 중국에서 만난 인물들과의 대화를 기록한 것이다.⁴⁾ 곧, 전통적인 문답식 산문 전통과 홍대용 자신이 기존에 저술했던 문답체 연행록의 형식을 기반으로 〈의산문답〉을 저술한 것이다.⁵⁾

위에서 밝힌 단서들은 〈의산문답〉의 도입부를 이루는 단순한 설정으로 여기기는 어려울 듯하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홍대용의 연행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재검토하고, 연행록의 전통 속에서 〈의산문답〉을 바라볼 때 어떠한 결론이 도출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II. 연행의 목적 재고(再考)

해와 달을 조롱 속의 새처럼 살피노라니,
하늘과 땅은 물 위에 뜬 부평초 같구나.⁶⁾

日月籠中鳥 乾坤水上萍

3)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연행사절의 북경 체류 기간은 2개월 정도였다. 홍대용의 경우 1765년 12월 27일에 북경에 도착하였고, 이듬해 3월 1일에 북경을 떠났다.

4) 『湛軒燕記』에 속한 問答類 작품은 〈吳彭問答〉·〈蔣周問答〉·〈劉鮑問答〉이 있다.

5) 문답식 산문의 전통은 司馬相如의 〈子虛賦〉와 東方朔의 〈非有先生論〉 등에서 시작되어, 우리나라에서는 李奎報의 〈鏡說〉, 鄭道傳의 〈謝魑魅文〉, 金時習의 『雜著』에 등장하는 ‘清寒者’, 李珣의 〈東湖問答〉에 나오는 ‘主人’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작품의 전형성을 확보하여 펼쳐질 이야기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복선의 기능을 담당한다. 우지영, 「문답식 산문의 창작 전통에서 고찰한 홍대용의 〈의산문답〉」, 『동방한문학』 52집(2012), 189쪽 참조.

6) 方回 編, 『瀛奎律髓』, 〈衡州送李大夫勉赴廣州〉, “斧鉞下青冥, 樓船過洞庭. 北風隨爽氣, 南斗避文星. 日月籠中鳥, 乾坤水上萍. 王孫丈人行, 垂老見飄零.”

앞의 시는 두보(杜甫, 701-762)의 작품으로, 그가 광주로 떠나는 절도사 이면(李勉)을 전송한 시다. 위의 두 구는 원 시의 5, 6구에 해당하는데, 두보가 자신의 처량한 신세를 한탄한 내용이므로, ‘오가는 해와 달 조롱 속 새요, 드넓은 하늘과 땅 물에 뜬 부평초라네’로 보아야 한다. 곧, 해와 달은 자유로이 오가는데 자신은 조롱에 갇힌 새처럼 매여 있으며, 드넓은 세상 속에서 정처 없이 떠도는 부평초 같다고 한 것이다.

홍대용은 자신이 세운 사설 천문대의 이름을 이 시에서 착안했다.⁷⁾ 해와 달을 시간으로 보고 하늘과 땅을 공간적 의미로 본다면, 시공간 속에 매인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아득한 감각을 느낄 수 있다. 이것은 막대한 우주를 확인한 상태에서 티끌만 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한 것이다. 또한 조롱은 곧 해와 달의 궤도를 측정하는 통천의(統天儀)를 가리키며 물 위에 뜬 부평초는 연못을 관 후 가운데 만든 섬에 세운 농수각의 특이한 구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홍대용은 1765년(35세)에 연행을 했고, 그 내용을 연행록으로 남겼다. 기존의 연구 결과는 대체로 그가 연행을 통해 큰 충격을 받아 사상적 변화를 겪게 되고, 그 결과 북학사상을 형성하여 <의산문답>과 같은 글을 짓게 되었다고 하였다.⁸⁾ 곧, 연행이 그의 삶과 사상이 변화되는 중요한 계기라는 것이다. 이 글의 주장 역시 그가 연행을 통해 모종의 자극을 받은 점을 전적으로 부인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의 연행록과 연행을 전후한 행적을 따져보았을 때, 기존의 인식과 다른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 의문은 <의산문답>의 도입부에서 시작된다. 허저는 북경에서 60일간 머물며 선비들과 만났으나 자신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인물을 만날 수는 없었다고 했다. 이 발언은 어쩌면 홍대용이 느낀 연행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말이 아닐까? 그렇다면 홍대용의 연행, 특히 북경 체재 2개월이 어떠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음 표는 한글본 『을병연행록(乙丙燕行錄)』에서 천주당을 방문한 내용만 정리한 후, 한문본 『담헌연기』의 <유포문답(劉鮑問答)>과 비교한 것이다. 『담헌연기』는 주제 중심으로 편집된 기사체(紀事體) 연행록으

7) 洪大容, 『湛軒書』 內集 3권, 「杭傳尺牘」, <乾淨筆談續>.

8) 이경구, 「담헌의 지식인 교유와 지성사적 위치」, 『담헌 홍대용 연구』(사람의 무늬, 2012), 334쪽 참조.

로9), 그중에서 〈유포문답〉은 천주당 남당에서 유송령(劉松齡, August von Hallerstein, 1703-1774)과 포우관(鮑友管, Antoine Gogeisl, 1701-1771)을 만난 내용만 담고 있다. 그러므로 〈유포문답〉만으로는 당시의 정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다. 반면, 『을병연행록』은 일기체(日記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당시의 상황을 〈유포문답〉보다 상세하게 전하고 있다. 특히 홍대용이 관소를 지키던 통관배의 방해로 인해 천주당을 방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과정을 주목할 만한데, 북경에 체재한 2개월 중에서 앞의 1개월은 천주당에 가기 위해 집중되었다고 볼 수 있다.

표- 한글본 『乙丙燕行錄』과 한문본 『湛軒燕記』의 천주당 관련 기사 비교

날짜	한글본 『乙丙燕行錄』, 해당 기사	한문본 『湛軒燕記』, 〈劉鮑問答〉와 비교 ¹⁰⁾
1월 7일	• 세팔을 남당으로 보내 방문의사를 타진하여, 20일 이후에나 시간이 있으리라는 전갈이 올	(-) 천주당 방문의 어려움을 밝힌 세팔의 발언
1월 8일	• 편지와 함께 장지(2) ¹¹⁾ · 부채(2) · 먹(3) · 침심원(3)을 보내, 다음날 만나기로 약속함	
1월 9일	• 서종맹이 홍대용을 위해 열어준 연회를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 천주당으로 향함 • 유송령과 포우관을 만나 이야기하였으나 언어의 한계로 깊은 대화를 하지 못함 • 천주당의 그림과 기물, 풍금 등을 구경함	(-) 풍금을 보여달라 하자 처음에는 매우 곤란해(至難)하다가, 여러 차례 청한 후에야 열쇠를 가져오게 하여 보여줌 (+) 홍대용이 풍금을 연주하는 장면에서 더 많은 대화가 삽입됨 (-) 그들이 머무는 칸에 들어가 보기를 여러 번 간청하였으나, 매우 어렵게 여기며 끝내 보여주지 않음
1월 13일	• 이덕성과 다시 방문하였으나 유송령은 출장을 가고, 포우관은 바쁘기 때문에 만나지 못하고 돌아옴. 다시 19일에 만나기로 약속함	(-) 포우관이 마침 손님을 돌려보냈으나 홍대용 일행을 보고서 급히 몸을 숨겨 도로 들어가 버렸다는 세팔의 발언
1월 19일	• 천주당을 방문하고자 했으나 거절당함. 이에 앞으로 영원히 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어 만남 성공 • 천주교의 교리, 오성의 경위 측후, 추보법 등을 질문하고, 혼천의, 관상대도, 태양의 흑점 관측	(-) 날마다 천주당에 방문하여 배우고자 하는데 한가한 날이 없다고 하여 안타깝다는 홍대용의 발언 (-)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천주당에서 우리나라 사람을 반겼으나 지금은 우리를 소홀히 대접하여 통분하다는 이덕성의 발언
1월 24일	• 동천주당 방문	• 유송령, 포우관과 관계없는 내용이므로 실지 않음

9) 이 글에서는 金景善(1788-?)이 『燕轅直指』에서 3대 연행록의 문체를 編年體(日記體), 紀事體, 立傳體로 나눈 분류를 따르고자 한다.

표-계속

날짜	한글본 『乙丙燕行錄』, 해당 기사	한문본 『湛軒燕記』, 〈劉鮑問答〉와 비교
2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송령이 대마도와 부산의 위치와 왜인의 내왕 여부를 질문함 • 서양 붓, 의기, 요종, 일표, 비연, 안경, 나경 등을 구경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명종과 가지고 있는 의기(儀器)를 보고 싶다고 하며 여러 차례 청했는데, 계속 거절하다가 사람을 시켜 꺼내어 보여줌 (-) 요종을 자세히 보고자 하여 손을 잠깐 달라 하자, 포우관이 놀라며 다치게 하지 말라고 함. 그 기색이 매우 응속(庸俗)하여 즉시 돌려줌 (-) 처음부터 끝까지 전혀 친절하지 않고 서책과 의기는 없다며 보여주려 하지 않아 분통이 터진다는 이덕성의 발언
2월 2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화(2), 능화(2), 고과(4), 흙독석(2)을 받음 • 삼사의 폐백에 대한 답례를 하지 않아 이후로 발걸음을 하지 않음 	

〈유포문답〉에서는 유송령과 포우관이 자신들의 바깥 일정으로 인해 흥대용 일행을 약간 성가시게 여긴 정도일 뿐 어느 정도의 대접을 해 준 것으로 나타나 있다. 반면 『을병연행록』에 묘사된 서양 선교사들은 시종일관 흥대용 일행을 귀찮아했다. 풍금을 연주하는 유명한 대목이 실린 1월 9일 기사를 예로 들 수 있다. 누각 위에 있는 여러 가지 악기 구경과 풍금 연주는 매우 곤란해하며 보여주기를 꺼려하는 유송령에게 몇 차례나 요청하고 나서야 가능했다. 자명종과 의기(儀器) 역시 여러 차례 청탁과 거절이 반복된 후에 겨우 구경할 수 있었으며, 선교사들이 머무는 칸은 끝내 보여주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 외에 『을병연행록』에서 가감 없이 표현된 선교사들에 대한 부정적인 행동과 발언은, 〈유포문답〉에서는 상당 부분 삭제되었고, 그들과의 교류가 더 친밀감 있게 보이도록 내용이 추가되거나 윤색되기도 하였다.¹²⁾ 『을병연행록』보다 『담헌연기』가 먼저 저술되었기 때문에 〈유포문답〉이 『을병연행록』의 내용을 뽑아 서술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두 연행록 내용이 차이 나는 이유는 후속 연구가 필요한데, 분명한 점은 『을병연행록』의 내용이 좀 더 사실에 가까우며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연행의 전모가 분명히 드러난다는 것이다.¹³⁾

10) 『을병연행록』을 기준으로, ‘(-)’는 〈유포문답〉에서 삭제된 내용이며, ‘(+)’는 〈유포문답〉에서 추가되거나 윤색된 부분을 표시한 것이다.

11) 괄호 안의 숫자는 개수이다.

12) 〈유포문답〉이 천주당 방문 내용을 축약한 것이기 때문에 표에서 제시한 부분들을 삭제한 것일 수 있다. 어쨌든 그들의 부정적인 접대와 평가 내용이 대부분 삭제된 것은 일정한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홍대용은 천주당 방문을 위해 치밀한 계획을 세웠다. 『을병연행록』에서 부사와 서장관 등은 1월 18일에 남천주당을, 1월 26일에 동천주당을 방문하는데, 홍대용은 그보다 일정을 앞당겨 방문했다. 방해받지 않는 상황에서 토론을 원했기 때문이다.¹⁴⁾ 또한 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다시는 오지 않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어색한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관심도 없던 서양 종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대화를 시작하기도 했다.¹⁵⁾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을병연행록』 2월 2일의 마지막 대목은 다음과 같다.

이덕성은 말아온 일이 있어 역법을 자세히 배우고 두어 가지 의기와 서책을 사고자 하였다. 그런데 대접이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지 않았고 서책과 의기는 모두 없다고 하며 보여주려 하지 않았으니, 너무나 분통이 터졌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¹⁶⁾

〈유포문답〉에서는 위의 말이 삭제된 채, 사행의 답례가 없었기 때문에 찾아가지 않았다고만 되어 있을 뿐이다.¹⁷⁾ 어쨌든 2월 2일을 마지막으로 홍대용은 천주당에 발길을 끊는다. 기존 연구는 천주당 방문 내용이 더 우호적인 〈유포문답〉에 큰 비중을 둔 듯하다. 하지만 〈유포문답〉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전 연행록과 비교해보면 그의 천주당 방문은 문전박대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¹⁸⁾

13) 『을병연행록』이 더 사실에 가깝다는 주장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연행록 저술의 순서를 생각해본다면, 홍대용은 '일기체로 기록된 초고'를 토대로 각각 『담헌연기』와 『을병연행록』을 저술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 초고의 내용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것을 가공한 정도는 『담헌연기』 쪽이 훨씬 크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표를 통해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그러므로 일기체로 기록된 『을병연행록』이 사실에 더 가깝다고 보아도 무리가 없을 듯하다.

14) 주우진, 「홍대용의 『연기』와 『을병연행록』 비교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2009), 23쪽 참조.

15) 홍대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연행사들은 서양의 종교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天主實義』와 같은 기독교 교리서들이 유포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교리는 이해하고 있었다. 특히 천주교가 도교와 불교에서 교리를 따온 변종이라고 평가하였으며 이는 연행사들의 일반적 인식이었다.

16) 洪大容, 『乙丙燕行錄』, 2월 2일 기사. “이덕성은 맞아온 일이 이서 녍법(曆法)을 쓰시 비호고 두어 가지 의기(儀器)와 서책(書冊)을 사고져 하엿더니 덕접이 종시(終始) 관곡(款曲)지 아니하고, 서책과 의기는 다 업노라 일코고 즐겨 비지 아니하니 2장 통분(痛忿)하야 하디 홀 일이 업더라.”

17) 洪大容, 『湛軒書』, 『燕記』, 〈劉鮑問答〉. “於使行, 受其幣而無所報, 以其意終落落, 不復往.”

18) 선교사들은 儀器를 미리 보여주는 경우가 없었다. 홍대용 측이 매번 의기가 있느냐고 묻고 요청한 후에 보여주었다.

『연행일록(燕行日錄)』 1756년 1월 21일 기사에서 정광충(鄭光忠, 1703-?) 이 유송령을 만났을 때는, 그를 ‘진실로 함께 대화를 나눌만 한 자였다’라는 좋은 평가를 내렸다. 또한 『북원록(北轅錄)』 1761년 2월 6일 기사에서 이상봉(李商鳳, 1733-1801)은 유송령을 만나 역법과 천문에 대한 대화를 나누었고, 『곤여도설(坤輿圖說)』·〈황도총성도(黃道總星圖)〉·〈수묵우렵도(水墨羽獵圖)〉 등의 선물을 받았다. 이상봉의 연행은 홍대용과는 4년밖에 차이나지 않는다. 홍대용 이후로 연행사들의 천주당 방문이 쉽지 않게 되었는데¹⁹⁾, 엄수(嚴壽, 1716-1786)·이덕무(李德懋, 1741-1793)·이노춘(李魯春, 1752-?)은 모두 서양 선교사들의 불친절과 관람거절 등으로 인해 불쾌감을 드러냈다.²⁰⁾

상황이 이렇다면 맹목적으로 그가 연행을 통해 충격을 받고 성과를 얻었다고 할 것이 아니라, 연행의 어떠한 부분이 인식의 전환점이 되었는지 재고해보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행사들은 연행 전부터 전대(前代) 연행록을 통해 여행과 관련된 전반적인 자료를 정리하고 중국어를 익히는 등의 준비를 해왔다. 그로 인해 현지인들보다 더 풍부하고 수준 높은 정보로 상대를 압도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러한 경향은 연행록의 변천과 정보 집적의 단계로 보아도 마찬가지다. 홍대용이 연행한 시기는 청이 안정기로 접어든 지 1세기 가까운 시간이 지났고, 그에 따른 연행록 및 관련된 정보의 집적도는 이미 상당한 단계에 접어들었다. 또한 중국에서 들여온 서적과 각종 서양 과학기기들은 17세기 초부터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했다.²¹⁾

19) 洪大容, 『乙丙燕行錄』, 1월 7일 기사. “년전은 천주당 사름이 도선 사름을 각별이 대접하고 귀경 가는 사름을 막는 일이 업더니, 근년에 귀경가는 사름이 혹 잡되어 보치고 자리와 그림을 더러이느 고로 심히 괴로이 녀여 문을 막아 드리디 아니 하니, 미리 통치 아니 하면 드러가기를 밋디 못하리라.”; 세팔의 말에 의하면 이 시기 조선인의 무례로 인해 천주당 방문이 어려워졌다고 했다. 이상봉과 홍대용 사이(1761-1764)에 여섯 차례의 연행이 있었고, 그 사이에 이헌목의 『燕行日錄』(1763), 김종정의 『瀋陽日錄』(1764)이 남아 있는데 관련된 내용은 찾지 못했다.

20) 嚴壽, 『燕行錄』, 1774년 2월 25일. “人■■■以爭入, 且有恨怒色, 驅送從人. 屢致懇款. 有二漢, 上樓求索清心丸. 試使爲之, 則一人春機, 一人■■■■露出, 衆■■■有樂聲而旋止. 自謂不習, 尤勸而不從, 殊可愼歎.”(■■는 관독 불가); 李德懋, 『入燕記』, 1778년 6월 14일. “西牆外, 有儀器之閣, 而守者竟不許其觀, 甚可恨也.”; 李魯春, 『북연기행』, 1784년 1월 7일. “문을 즈으고 다 피하야시니, ‘이는 전년의 흥항시와 구경하고 도라갈 때의 주인이 나와 인스하는 거슬 모르고 쇼디하니 주인이 대로하야 욱한다 하고 도선 사름을 덕접디 아닛는다’ 하더라.”

21) 강명관,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 18·19세기 京華世族」, 『민족문화연구』 9집(1996) 참조; 김상혁, 『송이영의 혼천시계』(한국학술정보, 2012),

농수각은 이를 기반으로 지어진 것이다. 『이재난고』에는 통천의의 제작비만 4-5만 문이 들었다고 했는데, 당시 집 한 채 값에 달하는 금액이었다고 한다.²²⁾ 〈농수각의기지(籠水閣儀器志)〉에서는 그가 만든 천문기기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통천의(統天儀)를 비롯해 혼상의(渾象儀)·측관의(測管儀)·구고의(勾股儀) 및 자명종(후종)이 있었다고 했다. 또한 연못 안의 섬에다 지은 농수각의 형태는 그의 우주관을 드러내기 위한 방편이었으며 이러한 일련의 사업에 거대한 자금이 필요했음은 자명하다.²³⁾

뿐만 아니라 홍대용은 석실서원에서 김이안(金履安, 1722-1791)과 함께 선기옥형(璇璣玉衡)에 대한 토론을 나누기도 하였으며²⁴⁾, 그의 지동설은 박지원도 지적한 바 있듯이 김석문(金錫文, 1658-1735)의 삼환부공설(三丸浮空說)에서 착안한 것이었다.²⁵⁾ 또한 그가 제작한 통천의는 시계기술과 함께 서양의 제도를 반영한 새로운 방식의 천문시계였다.²⁶⁾ 그가 연행 이후 통천의를 만들고 농수각을 지었다면, 연행의 충격이 그를 변화시켰다는 주장이 성립될 수 있다. 그러나 농수각 건립은 연행 이전이다. 지금까지 농수각 건립을 중요한 사건으로 여겨왔으나 정작 왜 그것이 연행 전이었던가에 대한 문제는 따지지 않았다. 확실한 점은 홍대용이 서양 선교사들의 불친절한 대접으로 천주당에 발길을 끊게 되고, 이는 오히려 남은 1개월의 체재 기간 동안 엄성(嚴誠)·반정균(潘庭筠)·육비

34쪽 참조. 곧, 『곤여만국전도』(1602), 鄭斗源이 陸若漢(Joas Rodriguez, 1561-1634)에게 받은 자명종 등, 『天文略』, 『職方外記』, 시헌력의 도입(1644-1653), 『渾天儀說』(1644), 輿地球(1645) 등과 같은 서양과학기술의 축적과 선진적 지식인들의 서양과학에 대한 신뢰를 기반했던 것으로 보인다.

22) 이종묵, 『조선의 문화공간』 4권(휴머니스트, 2006), 276쪽 참조.

23) 각종 의기를 제작하고 농수각을 짓는 데 필요한 자금은 홍대용의 부친 홍익이 지원해주었다. 그가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한 점도 더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한 홍대용은 『성호사설』 20권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그와 동문수학한 黃胤錫의 『頤齋亂藁』로 확인된다. 자세한 내용은 박희병, 『범애와 평등』(돌베개, 2013), 40쪽 참조.

24) 洪大容, 『湛軒書』, 「愛吾廬題詠」, 〈籠水閣記〉. “余少讀虞書璣衡之文, 則心悅之. 嘗採註家言, 縛竹爲器, 轉之旋旋如紡車, 賤陋可笑. 然遇朋友可語, 輒出而辨質焉, 洪君弘之, 其一人耳.”

25) 朴趾源, 『熱河日記』, 〈太學留館錄〉. “敝友未嘗著書. 先輩金錫文, 先有三丸浮空之說, 敝友特演說以自滑稽.”

26) 洪大容, 『湛軒書』, 「籌解需用」, 〈籠水閣儀器志〉. “今就渾儀舊制, 酌損繁縟, 會通西法, 創立一儀.”; 한영호, 「농수각 천문시계」, 『역사학보』 177집(2003), 29쪽 참조; 홍대용은 기존의 渾天儀라는 명칭 대신, 統天儀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그의 자부심을 나타낸 것이다.

(陸飛) 등 중국 선비와의 교류에 힘을 쏟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²⁷⁾ 그러나 중국 선비들과의 교류에서도 큰 인식의 전환은 없었다. 홍대용은 그들에게 농수각에 대해 설명하고 그와 관련된 시문(詩文)을 받았을 뿐이다. 그들은 과거를 준비하고 있었으므로, 천문학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홍대용에 미치지 못했다.²⁸⁾

18세기 초부터 연행자들은 자신이 쓸 연행록에서, 연행 중에 확보한 자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민했다. 박지원이 그의 소설 속 허구적 인물인 ‘허생(許生)의 눈’으로 중국을 살피며 『열하일기』의 소재를 찾았던 것처럼, 홍대용은 자신의 눈으로 중국을 보기 위해서, 또한 자신이 지금까지 이루어낸 성과를 재확인하기 위해 중국을 찾았다고 할 수 있다. 그가 천주당을 찾은 이유는, 자신이 제작했던 통천의의 오류를 바로잡기 위해서였다.

[1] “어리석은 제가 외람되어 혼천의(渾天儀) 한 벌을 만들어 여러 천상(天象)을 참고하여 보았더니 잘못된 곳이 많았습니다. 귀(貴) 당에는 정확한 혼천의가 있을 것이니, 한번 보여주셨으면 합니다.”²⁹⁾

[2] 그 크기는 큰 뒤웅박 같고, 종이를 배접(褙接)하여 만든 것이다. 위에 삼원(三垣) 28수(宿)의 온갖 성신(星辰)을 모두 갖추어 그려놓았고, 주석 고리를 그 위에 끼었는데 동서로 원하는 대로 돌릴 수 있다. 남북은 각각 끝은 쇠로 버티어 치우쳐 놓지 못하게 하였다. 한 고리의 이름은 적도(赤道)인데 하늘 가운데를 이르는 것이고, 한 고리는 황도(黃道)인데 해와 달이 다니는 길을 이르는 것이다. 유송영이 두 고리를 돌려 보이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해마다 도수가 달라지는 것을 상고하게 하는 것입니다.”³⁰⁾

27) 홍대용이 중국 선비들과 만난 내용이 『담헌서』의 〈건정동필담〉에 실려 있다.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약 1개월간 매일같이 중국 문인과 필담하고, 편지를 주고받았다.

28) 연행 이후, 중국 문인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역외출주론 등의 도출과정이 연역된다. 그러나 이것은 연행 당시 받은 충격이라기보다, 오히려 연행 이후 김중후와의 논쟁을 통해 받은 것으로 짐작된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김중후와의 논쟁에 대해서는 박희병, 앞의 책, 16쪽, 151쪽에 자세하다.

29) 洪大容, 『湛軒書』, 〈劉鮑問答〉. “愚不揆僭率, 作渾天儀一座, 考諸天象, 多有違錯, 貴堂當有奇器, 願賜一覽.”

30) 洪大容, 『乙丙燕行錄』, 1월 19일 기사. “되쇼는 큰 뒤웅 갖고, 죠희틀 비접혀야 문든 거시라. 우희 솜원 니십팔수의 온갖 성신을 희비(該備)히 그리고, 주석 고리틀 그 우희 세여시되 동서로 임의로 돌리고, 남북은 각각 고든 쇠를 버티여 췌노지 못하게 해야시니, 혼 골의는 일흠이 적되니 하늘 가운데를 니름이오, 혼 고리는 황되니 일월 단니는 길을 니름이라. 뉴송영이 두 고리흘 돌려 비며 니르되, “이는 해마다 도수의 틀니는 거슬 상고하게 흠이라.” 혼더라.

유송령은 홍대용이 만든 혼천의가 어떤 것인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적도와 황도의 고리가 움직이도록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오류가 일어난 것이라고 보여준 듯하다. 홍대용이 만든 통천의는 서양의 시계 기술에 서양 제도를 적용해 제작한 것으로, 유송령은 홍대용이 말한 혼천의가 혼천시계라는 것은 짐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유송령이 말해준 내용으로는 오류를 고칠 수 없었던 것이 분명하다.³¹⁾ 홍대용의 지식 형성과 학문적 경지는 연행 이전에 완성되었고, 그 결과는 농수각의 건립으로 구체화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홍대용의 연행을 기점으로 한·중 문인의 교류에 큰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의 연행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건정동에서 만난 중국 선비들과의 교류는 조선의 문사들을 자극하였고, 이전에는 오랑캐로 여겼던 그들에 대하여 ‘사귄만 한 벗’이라는 인식이 퍼지기 시작했다.³²⁾ 이후 중국에 가는 문사들은, 무엇보다 중국에서 만난 ‘인물’에 집중하기 시작한다. 또한 이러한 인간적 교류를 정당화하기 위해 박지원은 이마두(利瑪竇, Matteo Ricci, 1552-1610)의 『교우론(交友論)』에서 그 논리를 끌어오기도 했다.³³⁾ 연행 후에도 홍대용은 혼천의의 오류를 바로잡는 일보다 중국 선비와의 교류에 집중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가 애초에 만나고자 했던 인물은 중국 선비가 아니라 서양 선교사였음이 분명하다.³⁴⁾

연행에 대한 충격은 18세기 중반에 오면 상당 부분 감소된다. 특히 축적된 연행정보와 서적 및 서양 과학기기들을 활용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사설 천문대까지 건립한 홍대용에게, 연행의 충격으로 인해 거대한 의식의 전환이 일어났다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다. 그의 연행은

31) 김상혁, 앞의 책, 81쪽. “홍대용의 혼천시계(통천의)는 송이영의 태양 운행장치를 개량하고 달 운행 장치도 톱니 환으로 개량했다. 또한 통천의에서 직접 시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동력장치로 서양식 자명종인 候鐘을 사용했다.”; 홍대용이 말한 ‘오류’라는 것은 혼천의 자체의 오류라기보다는 자동식 혼천시계의 미세한 오류가 누적되면서 天象과 오차가 생기게 되는 오류를 말한 것으로 보인다.

32) 청나라 선비들과의 교류는 유행처럼 번지기 시작한다. 그 양상은 천금매, 「18-19세기 朝·淸문인 교류척독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2011)에 자세히 다룬다.

33) 김명호, 「연암의 우정론과 西學의 영향-마테오 리치의 『交友論』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0집, 2011, 참조.

34) 이 부분은 홍대용이 중국 선비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다. 그는 연행 전에 이미 통천의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천주당의 서양 선교사를 방문하겠다는 명확한 목적과 대상을 정해놓고 있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반면에 그가 만나려고 했던 중국 선비는, 특정인이 아닌 불특정 다수를 지칭하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다르다고 하겠다.

통천의 오류를 바로잡겠다는 선명한 목적이 있었으며 이것은 자신의 학문적 성과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 그러나 기대를 걸었던 천주당에서 성과를 얻지 못하고 과학적 지식수준이 자신보다 못한 청나라 선비들을 만났을 뿐이다. <의산문답>에서 ‘자신을 알아주는 이를 만나지 못했다’는 것은 이를 두고 한 말이 아닐까? 그렇다면 <의산문답>은 연행에 대한 실망감을 상쇄시키고 더 발전된 학설을 주장하기 위해 지어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행록의 전통 수용

먼 길 가는 일정에 잠깐 틈 내어,
 석문(石門)의 선방(禪房)을 찾아가노라.
 들 객점은 짙은 그늘에 의지하고,
 매미 소리 들으며 산길에 오른다.
 종소리 들려오니 절 가까움 알고,
 마중 온 좋은 신선을 만난 듯.
 나그네 마음은 문득 스산해져,
 아득히 뻗은 길을 바라보네.³⁵⁾

暫偷行役暇	來訪石門禪
野店依深樹	山蹊入亂蟬
鐘來知近寺	僧出恍逢仙
客意飄蕭瑟	歸程望杳然

의식 있는 연행자들은 전대 연행록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핀 후, 그보다 더 다양하고 깊은 중국의 모습을 보고자 노력했다. 곧, 연행록의 창작은 반드시 이전의 연행록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는 작업이었다. 위 시는 이징구(李廷龜, 1564-1635)가 의무려산을 유람하면서 느낀 감흥을 읊은 것으로, <유의무려산기(遊醫巫閭山記)>의 내용을 축약한 듯한 시상이 펼쳐져 있다. 의무려산은 백두산(白頭山)·천산(千山)과 함께 동북지역의 3대 명산에 속한다. 중국과 조선을 오가던 사신들은 이 산에 주목하였는

35) 李廷龜, 『月沙集』, 「丙辰朝天錄」, <往醫巫閭山途中口占>.

데, 그들이 남긴 기록만 43건이 된다.³⁶⁾ 의무려산은 춘추전국 시기에 옥의 산지로도 유명했으며, 전국 말기에는 연나라에 속한 땅이었다. 원래는 고조선의 영역이었다가 연나라에 편입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의무려산을 비롯한 이 일대 지명에는 고구려어 및 예맥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의무려산은 원래 무려산(巫閭山)으로 불렸으며, 무려(巫閭)는 이 지역을 근거지로 한 고구려 부족의 명칭으로 짐작된다. 훗날 동이족이 사는 곳이라 하여 의무려산(夷巫閭山)으로 바뀌고, 이(夷)가 발음이 유사한 의(醫)로 바뀌면서 지금의 이름이 되었다.³⁷⁾ 또한 '화(華)와 이(夷)의 교계처(交界處)'³⁸⁾라 하여, 사이(際)의 의미³⁹⁾를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산이라고도 하였다. 이처럼 의무려산에 대해서는 특별한 역사적·공간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해석이 존재한다.

[1] 걸음마다 마주치는 기이한 나무와 바위들이 사랑스러웠으나 숨이 차서 일일이 구경할 겨를이 없었다. 절벽에 '북진무악(北鎭巫嶽)'이라고 새겨진 글씨가 있었고, 그 아래에 물이 솟아 작은 못을 이루었는데 그 물이 석정(石井)으로 흘렀다. 요리하는 이가 밥을 지어 술 그늘 아래에 식사를 차려주었다. 늙은 소나무는 구름을 찌를 듯 높고, 드러난 뿌리는 용의 발톱 같았다. [...] 응씨(應氏) 성의 도사(道士)가 술 그늘 아래로 맞이해 앉았는데 그의 사람됨이 충실(忠實)하여 이야기를 나눌 만하였다. 요리하는 이가 술과 과일을 내와 함께 몇 잔 마시고 헤어졌다.⁴⁰⁾

[2] 암자로 돌아오니 해가 저서 땅거미가 졌다. 종자(從者)는 사람과 말이 먹은 것을 돈으로 갚으려 했더니 암자의 승려가 물리치고 받지 않았다고 했다. 종이나 부채 같은 물건을 주려고 하였으나 깜빡 잊고 가져오지 않았다. 주머니를 뒤지니 먹 두 장이 있어 그에게 주니, 주지승이 몹시 고마워하였다. 주지승의 이름은 수행(秀行)이며 나이는 40세쯤 되었는데, 인품이 온화하고 정성을 다해 사람을 대했다. 신(申) 역관은 감격하여 여러 번 고맙다고 사례하였다.⁴¹⁾

36) 祁慶福·郭平, 『清代朝鮮使臣與醫巫閭山』, 『韓國學論文集』(遼寧民族出版社, 2009), 85쪽 참조.

37) 또한 遼河의 옛 이름은 句麗河이며, 巨流河는 구려하의 白讀이다. 구려하는 후에 麗河로 약칭하고, 麗의 발음이 遼와 유사하여 遼河가 되었다. 이 내용은 '謝景泉, 『醫巫閭山名稱考釋』, 『錦州師範學院學報』 21卷, 1999'를 참조했다.

38) 洪大容, 『湛軒書』, 「補遺」, 〈鑿山問答〉. “醫巫閭處夷夏之交, 東北之名嶽也.”

39) 사이(際)의 의미에 대해서는, '박수밀, 「사이」의 미학과 그 의미」, 『18세기 지식인의 생각과 글쓰기 전략』(태학사, 2007)에 자세하다.

40) 李廷龜, 『月沙集』 권38, 〈遊醫巫閭山記〉. “奇樹怪石, 步步可愛, 而喘息不暇答. 得一壁刻, 曰‘北鎭巫嶽’, 其下有水湧出小池, 承之爲石井. 廚人炊飯于此, 餉我於松陰. 松老入雲, 根露如龍爪. [...] 道士姓應人, 迎坐於松陰, 忠實可與語. 廚人進酒果, 數行而別.”

[3] 내가 정태현과 함께 의자 위에 앉자 주지승이 곧바로 백 개 남짓 되는 배 한 바구니를 내주며 말하기를, “먼 길을 오시느라 입이 타실 테니 이것을 드시고 갈증을 푸시지요”라고 했다. 그 배의 맛이 매우 시원하여 값을 치르려 하자, 고개를 짓고 손사래를 치며 사양했다. 그 중의 용모는 매우 순수하고 질박하였으며, 말투는 온화하고 간곡했다. 말하는 것마다 모두 마음속으로부터 나와 한 점도 꾸밈이 없었으니, 실로 이곳에 온 뒤로 처음 보는 일이었다. 김가재의 기록에서, ‘감로암의 중 수행(修行)은 사람됨이 온화하고 매우 정성스러워 끝내 밥값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는데, 내 생각에 분명 이 중인 것 같았다. 내가 말하길, “스님의 범명이 수행이십니까?”라고 묻자, 그 중이 깜짝 놀라며 말하길, “제 이름은 수행이 맞는데, 당신은 어떻게 아셨습니까? 도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까?”라고 했다. 내가 웃으며 대답하길, “저는 도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다. 계사년(癸巳年, 1713) 봄에 이 산에 와서 유람한 김 진사(金進士)는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귀국한 뒤에 스님이 너그럽게 대해주셨다고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또 제가 이곳에 올 때 꼭 의무려산에서 수행이라는 스님을 찾아가 보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오늘 스님을 만나보니 과연 들은 바와 같았기에 당신이 수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라고 했다.⁴²⁾

연행자들은 유람하는 도중에 만난 의무려산의 아름다운 경관을 표현하였는데, 이러한 유람의 형태는 후배들에게 답습된다. 유람의 순서는 산을 오르게 되는 계기, 과정 등을 서술한 후, 산 아래에서부터 산을 오르며 마주치는 경치를 묘사하였다. 이후 암자에서 식사를 하거나 스님을 만나 다과와 담화를 나눈 후 산을 내려오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이처럼 연행록과 유기(遊記)의 습합현상은 이정구로부터 시작하여 김창업에서 완성된다고 할 수 있다.

[1]은 이정구의 <유의무려산기>의 일부이다. 1617년 7월, 귀국하는 길에 산을 올랐다. 그는 식사를 하고 암자의 스님을 만났는데 이곳 전체의 분위기를 신선 세계에 비유하였으며, 산 아래에서 내려다본 마을은 ‘무릉(武陵)과 같은 마을’이라고 하였다. 그는 산의 경관과 분위기에

41)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권9, 3월 1일조. “既歸菴, 日已曛. 聞從者所言, 人馬所食, 以錢償之, 庵僧却而不受. 欲以紙扇等物贖之, 而忘未持來. 余搜囊中, 得二墨與之, 主僧稱多謝. 主僧名秀行, 年四十餘, 爲人樂易, 接待之間, 誠惻藹然. 申譯以感愧之意, 再三稱謝.”

42) 李器之, 『一庵燕記』, 9월 2일조. “余與鄭泰賢坐椅上, 主僧卽出梨一筐百餘顆餽之曰: “遠來口渴, 請以此解之.” 其味清爽, 欲以價償, 掉頭揮手. 其僧容貌醇古簡朴, 辭氣溫潤款曲, 言皆由中, 無一點外飾, 來此後初見也. 稼齋記, 言甘露菴僧秀行, 爲人樂易, 誠惻藹然, 終不受飯價云, 意必是此僧. 余曰: “和尚法名秀行耶?” 其僧驚怪曰: “吾名果秀行, 而老爺何從知之得非有術乎?” 余笑答: “吾非有術, 癸巳春來遊此山之人金進士, 卽吾親知. 吾來時囑必訪鑿巫閭和尚秀行云. 余見和尚, 果如所聞, 故知其爲秀行耳.”

흠뻑 취하여 그 흥취를 한껏 드러내었다.

[2]은 김창업의 『노가재연행일기』의 일부이다. 1713년 3월 1일, 귀국하는 길에 산을 올랐다. 김창업을 비롯한 동행은 의무려산의 경관에 큰 감동을 받았다. 김창업은 자신이 본 곳곳의 경관을 자세히 묘사하였고, 이정구의 유기에 언급된 장면들을 직접 확인하고자 했다. 특히 ‘복진무악’이라는 글씨를 새긴 암벽을 찾고자 했던 일이나, ‘무릉과 같은 마을’이라고 했던 도화동(桃花洞)을 찾았을 때 기뻐한 것은 이정구의 글을 통해 느낀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수행이라는 스님을 만나 그의 인품에 감동받았고, 수행의 절에서 하룻밤 묵으면서 고요한 밤의 정경을 담기도 했다. 그는 이튿날에도 수행과 함께 암자 주변과 산의 경관을 즐기며 대화를 나누었다.

[3]은 이기지의 『일암연기』의 일부이다. 1721년 9월 2일, 북경으로 가는 길에 산을 올랐다. 그는 『노가재연행일기』의 내용을 바탕으로 김창업의 동선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가 봤던 장면을 일일이 재확인했다. 『일암연기』는 『노가재연행일기』를 의식하면서 그 내용을 재검토하고 부족하다고 여겨지는 대목을 부연한 연행록인데⁴³⁾, 의무려산을 오른 기록에서는 김창업의 흔적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김창업 역시 연행을 떠나는 이기지에게 이 산에 있는 수행이라는 스님을 만나볼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그 사람이 말했다. “네가 동해(東海)에 사는 허자(虛子)인가?” 허자가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도술을 부린 것이 아닙니까?” 그는 무릎을 꿇은 채 눈을 부릅뜨며 말했다. “과연 허자가 맞구나. 내가 무슨 술법을 부린단 말이냐? 네 옷차림과 목소리로 동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다. 또 네 예법을 보니 겸손함을 꾸며서 공손한 체하면서 오직 헛된 것으로 사람을 대했다. 그래서 네가 허자라는 것을 알았지 내가 무슨 술법을 부렸겠느냐?”⁴⁴⁾

위의 내용은 〈의산문답〉에서 실옹이 허자를 알아맞히는 대목이다. 이를 예문 [3]과 비교해보면, 상대를 알아맞히고 도술을 부린 것인지

43) 김동건, 「『일암연기』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 40집(2012), 242쪽 참조.

44) 洪大容, 『湛軒書』, 「補遺」, 〈醫山問答〉. “巨人乃言曰: “爾是東海虛子也歟?” 虛子曰: “然. 夫子何以知之? 無乃有術乎?” 巨人乃據膝張目曰: “爾果虛子也. 余有何術哉? 見爾服聽爾音, 吾知其爲東海也. 觀爾禮, 飾讓以僞恭, 專以虛與人. 是以知爾爲虛子也, 余有何術哉?”

묻고, 도술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일련의 대화가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김창업과 이기지가 만났던 수행이라는 스님이 〈의산문답〉에서는 실용으로 설정되어 있다. 의무려산 유람의 구도와 그 내부의 인물 설정은 이정구-김창업-이기지로 이어지며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이것을 〈의산문답〉의 시공간 설정 및 허자와 실용의 대비 양상과 비교해보면, 이 글이 연행록에 습합된 유기의 전통을 이어받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허자를 표상한 수행이라는 스님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는 김창업에게 “소승은 개주(蓋州) 사람으로, 요동은 본래 귀국의 땅이었습니다. 개주가 요동에 있으니 저는 당신과 마찬가지로 고려 사람입니다”⁴⁵⁾라고 했다. 요동은 원래 고려 땅이므로 자신의 뿌리는 고려라는 말이다. 그가 사신 일행이 감동받을 만큼 친절을 베풀었던 이유는 자신과 뿌리가 같은 귀한 손님이 찾아왔기 때문이었다. 일개 스님의 발언일 뿐이지만 이를 통해 요동지역 사람들의 역사인식과 지리인식 및 민족 정체성을 미루어 알 수 있다. 또한 요동에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 걸쳐 발생한 조선 유민(流民)들이 곳곳에 퍼져 있었고⁴⁶⁾, 고구려의 역사에 대한 향수, 고토(故土)를 잃은 사실에 대한 안타까움 등이 합쳐져 이곳을 지나는 연행사들은 묘한 감정을 맛보게 된다. 그들이 요동지역의 지명을 고증하는 데 노력한 이유도, 〈의산문답〉에서 실용이 허자를 보자마자 조선 사람인 것을 안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하겠다. 〈의산문답〉의 창작은 연행록 창작의 전통을 이은 것이며, 이러한 점에서 볼 때 허자와 실용의 문답이 의무려산을 배경으로 한 것은 철저히 의도된 설정임이 분명하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의산문답〉에는 전대 연행록에서 뽑은 내용들이 삽입되어 있는데, 특히 『일암연기』와의 관련성이 깊게 드러난다. 홍대용은 이기지를 두고 ‘식견이 탁월하고 중국을 옹계 보았으며, 특히 그림과 천문관측 기계에 자세했다’고 평가했다.⁴⁷⁾ 이기지는 홍대용보다

45)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 권9, 3월 3일조. “秀行自言是蓋州人, 因謂遼東本是貴國地方, 蓋州亦遼東, 是俺與足下同爲高麗人云.”

46) 박현규, 「豊潤 高麗鋪村의 유래 고찰」, 『한국실학연구』 20집(2010), 188쪽 참조.

47) 朴趾源, 『熱河日記』, 『黃圖紀略』, 〈天主堂〉. “余友洪德保嘗論西洋人之巧曰: “我東先輩若金稼齋·李一菴, 皆見識卓越, 後人之所不可及. 尤在於善觀中原. 然其記天主堂, 則猶有憾焉. 此無他, 非人思慮所到, 亦非驟看所可領略. 至若後人之繼至者, 亦無不先觀天主堂, 然恍忽難測, 反斥幽恠, 是眼中都無所見者也. 稼齋詳於堂屋畫圖, 而一菴尤詳於畫圖儀器, 然不及風琴, 蓋二公之于音律, 不甚曉解, 故莫能彷彿也.”; 191페이지의 표에서

50년가량 먼저 연행을 한 인물로 그가 천주당에서 받은 학문적 충격은 이전 시기에 비할 수 없이 컸다. 두 글의 내용을 좀 더 면밀하게 비교해보도록 하겠다.

[가] “예로부터 모두들 주천(周天)의 도수는 365.1/4도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양의 방법은 5.1/4도를 제하고, 단지 360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에서 수천 년간 전해 내려온 역법이 모두 틀린 것입니까? [...] 「요전(堯典)」에 이르길, ‘기는(耒) 366일인데, 윤달을 두어 사시(四時)를 정하고 해를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요전」의 말 또한 틀린 것입니까?”⁴⁸⁾

[나] “그러나 서양 사람들의 정밀하고 자세한 기술로도 이미 ‘하늘은 운행하고 땅은 고요하다’라고 하였고, 중국의 성인(聖人) 공자(孔子)께서도 또한 ‘하늘의 운행은 굳세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모두 틀렸다는 것입니까?”⁴⁹⁾

[가]는 이기지가 10월 26일 천주당 남당을 방문하고 서양 선교사에게 질문한 부분이다. 동양과 서양의 주천 도수 차이인 ‘5.25도’의 문제에 대해 서양 선교사들과 토론을 벌였고, 결국 『서경』의 권위까지 무너뜨리는 그들의 학설을 쉽게 믿지 못하며 거듭 반문했다. 서양 선교사들의 발언은, 사실 수천 년간 내려온 경전의 내용이 틀렸으며 확고부동한 진리로 여겨져온 것들이 헛된 믿음이었다는 충격적 내용이다. 이기지는 자신이 지니고 있던 기존 상식을 뒤엎는 것이었기에 쉽게 수긍하지 못한다.

[나]는 허자가 지구가 돈다는 주장이 서양인이나 공자의 주장과 상치되므로, 그들의 말이 틀린 것이냐고 되묻는 부분이다. 이는 [가]에서 이기지가 대진현(戴進賢, Ignatius Kögler, 1680-1746)에게 『서경』의 내용이 틀린 것이냐고 따진 부분과 흡사한 형식으로 기술되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의산문답〉 곳곳에서 나타나는데, 독자들의 고정관념을 효과적으

유일하게 추가된 부분이 풍금을 연주하는 부분인데 위 내용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홍대용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나, 『노가재연행일기』나 『일암연기』와 차별되는 부분은 풍금을 연주한 내용이기 때문이다.

48) 李器之, 『一庵燕記』, 10월 26일조. “自古皆言周天, 三百六十五度四分度之一, 而今西洋之法, 去五度四分度之一, 但用三百六十度. 然則中國數千年曆法, 皆誤耶?” [...] “堯典曰, ‘耒三百有六旬有五, 以閏月, 定四時成歲.’ 然則 堯典之言, 亦誤耶?”

49) 洪大容, 『湛軒書』, 「補遺」, 〈醫山問答〉. “雖然, 西洋之精詳, 既云‘天運而地靜’. 孔子, 中國之聖人也, 亦曰‘天行健’. 然則彼皆非歟?”

로 공격하기 위한 장치이다.⁵⁰⁾

[대] “일식과 월식은 모두 천변(天變)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임금이 덕을 닦으면 일식과 월식이 있어야 하는데도 일어나지 않으며, 정사가 혼란스러우면 일식이 자주 나타납니다. 그래서 공자께서 『춘추(春秋)』를 지으시면서 반드시 일식을 큰 변괴로 기록하였습니다. 대개 인사의 선악에 따라 어떤 감응하는 바가 있기에 일식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성(五星)이 침범함에 있어서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대의 말을 따르면, 일식과 월식, 오성이 침범함은 일정한 시간이 있게 되는 것이고, 이는 천변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까?” 대진현이 대답하였다. “일식과 월식, 오성이 침범함은 예부터 지금까지 모두 응당 행해지는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천변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인사에 관계되는 것도 아닙니다.”⁵¹⁾

[대] 음양(陰陽)의 실에 구애되고 의리(義理) 따위에 얽매어 천체의 원리를 살피지 못한 것은 선유(先儒)들의 잘못이다. 달이 해를 가리면 일식이 일어나고, 지구가 달을 가리면 월식이 일어난다. 이것은 경도와 위도가 같기 때문에 세 별이 일직선에 놓이면 서로 가려져서 일식과 월식이 생기는 것이 운행의 당연한 법칙이다. 또 해가 지구에 먹히고 지구가 달에 먹히며 달이 지구에 먹히고 해가 달에 먹히는 것은 세 별의 변하지 않는 법도이지, 지구의 치란(治亂)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⁵²⁾

[대]는 인용문 [가]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이기지는 선교사들의 말대로라면 천체의 현상이 지상의 치란(治亂)과 관계되는 것이라는 ‘천인감응설(天人感應說)’이 틀린 것이 되는데, 그것이 맞느냐고 되물었다. 대진현은 모든 천문현상은 지상(地上)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라고 간단히 대답했다.

[대]의 내용은 수천 년간 내려온 천인감응설의 부정과 일식과 월식의 원리에 대해 설명한 대목이다. 허자 역시 천인감응설이 부정되는 시점에

50) 홍대용의 통천의에서는 360도의 주천도수가 적용되었다. 송이영의 혼천의 환에 적용된 눈금은 364.25도를 사용하는 주천도수와 360도의 두 가지 도수가 혼용되었으나 18세기 숭실대학교 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혼천의(홍대용이 제작한 통천의의 전 단계 작품)와 19세기 중반의 남병철의 혼천의는 모든 환이 360도의 눈금을 사용해 제작되었다. 김상혁, 앞의 책, 16쪽 참조.

51) 李器之, 『一庵燕記』, 10월 26일조. “日月食, 皆係天變, 人君修德, 則或當食不食, 政事昏亂, 則日食數見. 是以孔子作春秋, 必書日食以爲大變. 蓋人事之善惡, 有以感而致之, 至於五星凌犯亦然. 若如君言, 則日月食五星凌犯, 自有一定年月日時, 此不定爲天變乎?” 答, “日月食五星凌犯, 自古至今, 皆有應行年時, 並不爲天變, 不干人事.”

52) 洪大容, 『湛軒書』, 「補遺」, 〈靈山問答〉. “然則分野之說, 流傳已久. 或有明徵, 好風好雨, 瑩惑守心. 凡乾象之符應, 皆不足信乎?” [···] “拘於陰陽, 泥於理義, 不察天道, 先儒之過也. 夫月掩日而日爲之蝕, 地掩月而月爲之蝕, 經緯同度, 三界參直, 互掩爲蝕, 其行之常也. 且日食於地界而地食於月界, 月食於地界而日食於月界, 此三界之常度, 不係於地界之治亂.”

큰 혼란을 겪었으며, 이기지의 경우와 비슷한 예를 들어가며 천인감응설을 옹호했다. 또한 이것이 극복되는 과정 역시 상당히 유사하게 나타난다. 특히 이 예문은 선교사가 ‘응당 행해지는 때가 있다’고 간단히 대답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 설명한 듯하다. 또한 더 주목할 부분은 음양설(陰陽說)과 의리설(義理說)을 천문과 떼어놓는 발언이다.

[매] “상고시대부터 12방위에 28수를 배치하여 그 신(神)의 이름을 정하였습니다. 자(子)는 쥐, 축(丑)은 소와 같은 것이 그러합니다. 12방위는 옮겨지지 않는데, 28수가 점점 옮겨간다면 12신의 이름도 이에 따라 변경해야 하는 것입니까?” 대진현이 대답하였다. “상고 이래로 간지(干支)는 시진(時辰)과 짝하였습니다. 12궁의 이름은 일정하고 옮겨가지 않기에, 자는 쥐, 축은 소로 이름을 삼은 것이지 결코 성수(星宿)로 기준을 삼은 것은 아닙니다.”⁵³⁾

[매] 별에 이름이 있는 것은 역법가들이 임시로 정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이 부풀려지고 건강부회하여 속세의 일을 점친다 하여 술가들의 무기가 되었다. 그 지리멸렬함과 어긋나고 거짓됨은 중국의 전토를 하늘의 28수(宿)에 배치하여 나눈 것에서 극에 달한다. [...] “중국 땅을 28수에 배치하여 나누는 것은 전한 지 오래입니다. 이따금 분명한 징험이 있어 때에 맞게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불고, 재앙의 조짐을 보이는 형혹성(熒惑星)〔火星〕이 하늘의 심성(心星)을 침범하기도 하는데, 인간 세상의 일과 상응하는 모든 천문의 징조가 다 믿을 수 없다는 것입니까?”⁵⁴⁾

[매] 역시 [다]에서 이어지는 내용이다. 따라서 28수의 배치와 그것이 매년 조금씩 이동하는 문제에 대해 토론했는데, 이기지는 선교사들과 논쟁할 때 자신의 이론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28수의 내용을 죽 늘어놓으며 설명한다. 이에 선교사들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고 답하고, 이기지는 그들이 중국의 역법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믿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는 서양인들이 동양의 천문학을 알려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판한다.

[매]에서 실용은 하늘의 별자리를 28수(宿)에 대응시킨 것 자체가 잘못

53) 李器之, 『一庵燕記』, 10월 26일조. “上古時, 以十二方位, 配二十八宿. 定其神名, 如子鼠·丑牛之類是也. 十二方位不移, 而二十八宿漸移, 然則十二神名, 亦隨而變耶?” 答, “上古以來, 支干相配時辰. 十二宮名, 一定不移, 仍以子鼠·丑牛爲號, 並非以星宿爲準則.”

54) 洪大容, 『湛軒書』, 「補遺」, 〈鑿山問答〉. “星之有名, 曆家之權定也. 乃若繁衍牽合, 參以俗事, 轉作術家之櫛柄. 支離乖妄, 極於分野.” [...] 虛子曰: “然則分野之說, 流傳已久, 或有明徵, 好風好雨, 壑惑守心, 凡乾象之符應, 皆不足信乎?”

되었다고 했다. 이 부분에서는 28수를 비롯하여, 거기에서 파생되는 모든 술법과 미신적 짐술 등을 부정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미신적 천문관이 기존 중국 천문학의 가장 큰 폐단이었다고 지적하였다.

[사] “서양은 몇 도에 해당됩니까?”라고 하자, 그가 대답했다. “지역이 매우 커서 4-50도, 혹 6-70도가 되는 곳이 있으며, 북쪽의 바다 섬은 80도가 넘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혼천의를 북극까지 밀어서 돌려보니 해가 대지 위로 나온 것이 90도이니, 북극은 정히 하늘 한가운데에 해당되었다. 일륜(日輪)을 동지에 해당시키고 돌리자 해가 하늘을 한 번 돌 동안 오래도록 대지 아래 있고 대지 위로 나올 때가 없었다. 또 하지에 해당시키고 돌리자 해가 하늘을 한 번 돌 동안 오래도록 대지 위에 있고 대지 아래로 들어갈 때가 없었다. 내가 “그렇다면 서양의 북쪽 끝의 지방에서는 하지는는 낮만 있고 밤이 없으며, 동지에는 밤만 있고 낮이 없습니까?”라고 묻자, 그 사람이 깜짝 놀라 혀를 차며 연이어 명백하다고 칭찬하며 말했다. “참으로 그러하니 북극지방에는 춘분에서 추분까지는 낮만 있고 밤이 없으며 추분에서 춘분까지는 밤만 있고 낮이 없습니다. 서양은 지역이 매우 커서 낮과 밤이 일정하지 않고, 단지 낮으로만 말한다면 12시⁵⁵⁾ · 14시 · 16시 · 18시인 곳이 있으며, 또 낮이 한 달이나 되는 곳도 있으며, 해가 방금 졌는데 곧바로 뜨는 곳도 있습니다.” 대개 북극에 가까울수록 해의 장단(長短)이 더욱 들쭉날쭉하여 가지런하지 않았다. 그 말과 기술이 적확하고 의심할 바 없어서, 오랜 세월 동안 대롱으로 표범을 들여다봐 온 듯한 비루함을 면할 만하였다.⁵⁶⁾

[아] “지면에서는 밤낮의 길이가 모두 같고 차이가 없습니까?” “어찌 그렇지느냐. 가령 이곳이 정오라면 여기서 동쪽 90도인 곳은 석양이 질 테고, 거기서 90도를 지나면 밤일 것이다. 여기서 서쪽 90도인 곳은 아침일 테고 거기서 또 90도 지나면 새벽일 것이다. 동쪽 혹은 서쪽으로 각각 180도를 넘어가서 이곳과 정반대가 되는 곳은 자정일 것이다. 적도(赤道)의 남북쪽으로 위도가 20도 내외인 곳은 1년 내내 밤낮의 길이가 균일하여 그 차이가 각(刻) · 분(分)에 불과하다. 이곳을 지날수록 밤낮의 차이는 점점 커진다. 극도로 긴 데는 열한 시가 넘고 극도로 짧은 데는 한

55) 동양의 전통 천문학에서는 하루를 12시간으로 나누었기 때문에 한 시간은 오늘날의 두 시간에 해당한다. 원문의 6시는 곧 12시간에 해당하므로, 다른 부분도 현재의 기준에 맞게 고쳤다.

56) 李器之, 『一庵燕記』, 10월 30일조. “西洋當幾度? 答, ‘地方甚大, 有四十餘度, 或五十度 · 六十度 · 七十度, 北邊海島, 有八十餘度.’ 余以渾天儀, 跟作北極, 出地九十度, 北極正當天中, 以日輪當冬至而轉之, 日輪一周天, 而長在地下, 無出地時. 又當夏至而轉之, 日輪一周天, 而長在地上, 無入地時. 余問, ‘西洋北邊, 夏至有晝無夜, 冬至有夜無晝乎?’ 其人咋舌, 連稱明白, 答, ‘儘然. 極北地方, 春分至秋分, 有晝無夜, 秋分至春分, 有夜無晝. 西洋地方極大, 晝夜不等, 但以晝言之, 有六時 · 七時 · 八時 · 九時處, 亦有一晝爲一朔之地, 亦有日纔沒而即出處.’ 云. 盖尤近北而日長短, 尤參差不齊, 其言其術, 的確無疑, 可以洗萬古管豹之陋也.”

시간도 되지 않는다. 두 극(極)지방에 이르러 적도가 지평선(地平線)처럼 되면 해가 적도 위에 있을 때는 반년 동안 낮이 계속되고, 해가 적도의 밑에 있을 때는 반년 동안 밤이 계속된다.”⁵⁷⁾

[사]는 이기지가 10월 30일 천주당 동당을 방문한 기사이다. 그는 이곳에서 서무덕(徐懋德, Pereira, A, 1690-1783)이 보여준 혼천의를 보고 위도의 개념을 이해한다. 이는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이다. 또한 새로운 인식을 바탕으로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백야(白夜) 현상을 유추해내어 서무덕을 놀라게 만들기도 했다.

[아]의 내용은 낮밤의 길이 변화와 극지방에서 일어나는 백야현상에 대해 설명한 것이다. 이 역시 『일암연기』에서 이기지가 서무덕과의 대화에서 백야현상을 유추한 대목을 참고하여 서술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암연기』에서는 위도의 개념으로 구체 일부분의 시간 변화를 설명했다면, 홍대용은 위도와 경도를 포함하여 지구를 입체로 본 상태에서 각 방향을 꼼꼼히 짚어주어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⁵⁸⁾

이기지의 천주당 방문의 성과는 신임옥사와 지속된 당쟁으로 인해 후대 인물에게 전해지지 못했으나, 그가 인식한 서양 과학의 핵심적 내용은 <의산문답>에 그대로 적용된다. 또한 허자의 질문과 실용의 답변 방식에서도 유사한 부분들이 엿보인다. <의산문답>에 적용된 이기지의 의식전환 양상은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천원지방설(天圓地方說)의 부정과 땅이 둥글다는 지원설(地圓說)의 제창, 28수와 같은 미신적 천문관의 배격, 천체현상과 현실 정치가 관계된다는 ‘천인감응설’의 부정, 『서경』·『황극경세서』·공자의 발언 등과 같은 권위의 부정, 낮밤의 길이 문제의 해결과 백야현상의 설명이다. 특히 『일암연기』에서 설명이 미흡한 부분들이 <의산문답>에서 더 자세히 부연 설명되고 있다.

『일암연기』의 내용은 <의산문답>의 저술에 상당한 영향을 준 모티브가 되었다. 홍대용이 이와 같이 한 이유는 이기지가 북경 천주당에서 받은

57) 洪大容, 『湛軒書』, 「補遺」, <醫山問答>. “虛子曰, 地面之晝夜長短, 彼此齊同, 無有差別乎, 實翁曰, 豈其然乎, 假如晝午於此, 則自此以東九十度爲夕照, 過此則爲昏曠, 自此而西九十度爲朝暾, 過此則爲晨曠, 東西各一百八十度, 卽此之對面而爲夜半, 赤道南北各二十餘度, 終年晝夜俱均, 所差不過刻分, 過此則晝夜之差漸多, 極長或過十一時, 極短或不及一時, 至于兩極而赤道爲地平, 則日在赤道上爲晝而占半年, 日在赤道下爲夜, 亦占半年.”

58) 이 부분의 내용은 『지방외기』의 내용과 유사한 점도 있다.

충격의 양상이 매우 인상적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신이 새롭게 제창하는 여러 가지 학설을 이기지가 천주당 선교사들과의 대화를 통해 인식을 전환했던 양상대로 묘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주목할 점은, 실기류인 연행록의 내용이 창작류로 변환되어가는 과정을 여실히 나타내고 있는 부분이다.⁵⁹⁾

또한 홍대용은 노론 학맥에 속하는 인물들과 관계가 깊었는데, 자신도 노론에 속해 있고 어릴 적부터 공부한 석실서원에서 개방적 학풍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의산문답> 도입부에서 실용이 앉은 새집처럼 만든 자리를 ‘증소(櫓巢)’라고 했는데⁶⁰⁾ 이는 노가재 김창업(金昌業)의 아들이자 이기지의 절친한 벗인 김신겸(金信謙, 1693-1738)의 호다. 그는 신임옥사 때 안변(安邊)으로 유배되어 그 슬픔을 「백육애음(百六哀吟)」으로 토로한 바 있다.⁶¹⁾ 그는 영조가 즉위한 후에도 벼슬하지 않고 강원도 영월에서 행정(杏亭) 옆에 ‘증소라는 집을 짓고 은거하였다. 그는 이곳에서 당대의 석학인 민우수(閔遇洙), 유숙기(兪肅基), 이봉상(李鳳祥) 등과 강론 활동을 펼쳐, 당대의 종학(從學)들에게 ‘증소 선생’으로 불리기도 했다. 곧, <의산문답>의 실용을 김신겸에 빗댄 부분이다. 석실서원의 김원행(金元行)이 과거 보는 자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는 신임옥사의 기억 때문이었다. 신임옥사로 인해 노론은 큰 피해를 입는데, 이를 계기로 노론 학맥 인사들은 숨어들어 성리학·상수학 등에 골몰하기 시작한다. 홍대용은 신임옥사에 대한 안타까운 감정을 가진 채, 시간이 갈수록 공리공론으로 치닫는 학계의 상황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내보인 것이 아닌가 한다.

IV. 맺음말

실용은 <의산문답>을 저술하던 만년의 홍대용 자신이기도 하면서,

59) 연행록이 실기류에서 창작류로 전환되는 양상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자세히 밝히도록 하겠다.

60) 洪大容, 『湛軒書』, 「補遺」, <鑿山問答>. “遂入門, 有巨人獨坐于櫓巢之上. 形容詭異, 斫木而書之曰實翁之居.”

61) 김남기, 「김신겸의 「百六哀吟」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22집(1998), 346쪽 참조.

의무려산의 승려 수행, 북경 천주당의 서양 선교사, 증소 선생 김신겸과 같이 여러 인물을 바탕으로 빚어내었다. 그리고 허자는 연행 당시의 홍대용이면서, 『일암연기』의 저자 이기지를 바탕으로 빚어낸 것이다. 물론 허자는 기존의 성리학적 사상과 의리론·화이론·복벌론 등에 매몰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의산문답〉은 홍대용이 애초에 계획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망감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있다. 그의 연행 이후 한·중 문인 교류의 양상이 크게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중국 선비는 처음부터 만나려고 한 대상이 아니었다. 홍대용은 연행 전에 각종 천문관측 기기를 제작하고 사설 천문대인 농수각을 지었다. 그 과정과 의미를 잘 따져보면 그가 연행을 통해 받았다는 충격의 정도와 의미는 재고해야 한다. 또한 〈의산문답〉의 시공간 설정과 허자-실용의 대비는 연행록에 습합된 유기의 전통 속에서 배태된 것이며, 『일암연기』에 나타나는 이기지의 의식전환 양상을 본받아 〈의산문답〉에 적용시켰다.

이 글에서는 연행록의 전통을 중심으로 〈의산문답〉의 창작 배경을 살펴보았다. 〈의산문답〉에 나타나는 홍대용의 다양한 사상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으므로 첨언하지 않았다. 다만 이 글에서 아직 다루지 못한 〈의산문답〉과 『열하일기』의 관계에 대해서는 후속 논문을 통해 정리해보도록 하겠다.

참 고 문 헌

- 金景善, 『燕輶直指』(『연행록전집』 71,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金昌業, 『老稼齋燕行日記』(『연행록전집』 32-33,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李器之, 『一庵燕記』(『연행록전집보유』 上, 동아시아학술원 대동문화연구원, 2008).
- 李魯春, 『북연기횡』(숭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소장본).
- 李德懋, 『入燕記』(『연행록전집』 57,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李廷龜, 『月沙集』(한국문집총간 70, 민족문화추진회, 1990).
- 朴趾源, 『燕巖集』(한국문집총간 252, 민족문화추진회, 1990).
- 嚴璫, 『燕行錄』(『연행록전집』 40,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 洪大容, 『湛軒書』(한국문집총간 248, 민족문화추진회, 2000).
- _____, 『乙丙燕行錄』(『연행록전집』 43-48,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方回 選評, 『瀛奎律髓』. 上海古籍出版社, 2005.

- 강명관, 「조선 후기 서적의 수입·유통과 장서가의 출현 - 18·19세기 京華世族」.
『민족문화사연구』 9집, 1996.
- 김남기, 「김신겸의 「百六哀吟」에 대하여」. 『한국한문학연구』 22집, 1998.
- 김동건, 「『일암연기』에 나타난 글쓰기 방식」. 『민족문화』 40집, 2012.
- 김상혁, 『송이영의 혼천시계』. 한국학술정보, 2012.
- 김명호, 「연암의 우정론과 西學의 영향 - 마테오 리치의 『交友論』을 중심으로」.
『고전문학연구』 40집, 2011.
- 박수밀, 「사이의 미학과 그 의미」. 『18세기 지식인의 생각과 글쓰기 전략』, 태학사, 2007.
- 박현규, 「豊潤 高麗鋪村의 유래 고찰」. 『한국실학연구』 20집, 2010.
- 박희병, 『범애와 평등』. 돌베개, 2013.
- 우지영, 「문답식 산문의 창작 전통에서 고찰한 홍대용의 〈의산문답〉」. 『동방한문학』 52집, 2012.
- 이종목, 『조선의 문화공간』 4권. 휴머니스트, 2006.
- 주우진, 「홍대용의 『연기』와 『을병연행록』 비교 연구」. 한국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9.
- 천근매, 「18-19세기 朝·淸문인 교류척독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한영호, 「농수가 천문시계」, 『역사학보』 177집, 2003.

- 祁慶福·郭平, 「清代朝鮮使臣與醫巫閭山」. 『韓國學論文集』, 遼寧民族出版社, 2009.
- 謝景泉, 「醫巫閭山名稱考釋」. 『錦州師範學院學報』 21卷, 1999.

국 문 요 약

실옹(實翁)은 〈의산문답〉을 저술하던 만년의 홍대용 자신이기도 하면서, 의무려산의 승려 수행(秀行), 북경 천주당의 서양 선교사, 증소 선생(樽巢先生) 김신겸과 같은 여러 인물을 바탕으로 빚어내었다. 그리고 허자(虛子)는 연행 당시의 홍대용이면서, 『일암연기』의 저자 이기지를 바탕으로 빚어낸 것이다. 물론 허자는 기존의 성리학적 사상과 의리론·화이론·북벌론 등에 매몰된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의산문답〉은 홍대용이 애초에 계획했던 목적을 이루지 못한 실망감에서 시작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의 연행 이후 한·중 문인 교류의 양상이 크게 전환되는 성과가 있었지만, 중국 선비는 애초에 만나려고 한 대상이 아니었다. 또한 홍대용은 연행 전에 각종 천문관측 기계를 제작하여 사설 천문대인 농수각을 지었다. 그 의미를 따져보면, 그가 연행을 통해 받았다는 충격의 정도와 의미는 재고해야 할 것이다. 〈의산문답〉의 시공간 설정과 허자-실옹의 대비는 연행록에 습합된 유기(遊記)의 전통 속에서 배태된 것이며, 『일암연기』에 나타나는 이기지의 의식전환 양상을 본받아 〈의산문답〉에 적용시켰다.

〈의산문답〉은 당대 학자들이 열광했던 중국 문인과의 교류와는 다른 방향의 저술이다. 홍대용 대에는 땅이 둥글다는 것을 상당한 지식인층이 확론으로 받아들였던 듯하나, 지구가 돈다는 것을 설득하기는 쉽지 않았던 것 같다. ‘듣고 웃지 않는 이가 없었다(聞者莫不笑之)’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의산문답〉은 곧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저술되었으며, 지전설(地轉說)로 파생된 다양한 사상이 추가되었다. 또한 공리공론으로 치닫는 학계의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의도도 엿보인다.

투고일 2013. 6. 20.

심사일 2013. 7. 29.

게재 확정일 2013. 8. 5.

주제어(keyword) 홍대용(Hong Dae-yong), 〈의산문답〉(Ui-san-moon-dap), 연행록의 전통(Tradition of *Yeon-haeng-rok*), 실옹(Sil-ong), 허자(Heoja)

